

남자가 원하는 성 vs 여자가 원하는 성 II

성의 남녀차이

성 트러블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는 부부나 커플. 그 원인 중에는 어느 한 쪽의 심각한 성기능 장애로 치료를 받아야할 만큼 문제가 되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양쪽 모두에서 특별한 성기능 장애가 없는데도 파트너와의 성적인 차이를 잘 이해하거나 해결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도 꽤 많다. 그렇다면 남자가 원하는 성과 여자가 원하는 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강 동 우

성의학클리닉 원장, 서울의대 임상교수

♣ 우리는 매번 오르가즘을 느껴야해?

성기능문제를 고민하는 많은 남성을 보면, 참으로 터무니없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꽤 있다. 즉, 자신의 성기가 충분히 커야하고 돌덩이처럼 딱딱해야하며, 아내가 만족할 만큼 충분한 시간 성행위를 해줘야 아내가 만족할 것이란 착각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성 트러블로 필자를 찾는 부부환자들을 보면 이런 문제가 실제 핵심이 아니란 사실이 쉽게 드러난다. 아내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가에 있지 매번의 성행위에서 최고의 만족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남편들은 꼭 '느꼈어? 좋았어?' 확인하려 든다.

왜 그럴까? 남성의 성심리에는 성취욕과 과시욕이 자

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아내가 최고의 절정을 맛봤으면 하는 심리다. 물론 아내의 즐거움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는 '나몰라라' 형의 남편보다는 아내의 느낌을 배려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르가즘을 느꼈나에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남편들은 자신의 컨디션이나 피로에 따라 성행위에 소극적일 때가 많고, 매번 최고를 지향하다보니 오히려 성행위에 부담을 갖는 것이 성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다.

아내 역시 내 남편이 나로 인해 최고의 즐거움을 느꼈으면 하고, 나만한 여자가 없다는 것을 매번 확인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을 테고, 우리 가정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란 지나친 착각. 심지어 이런 여성들은 남편이 성생활에서 별 즐거움이 없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 남편의 외도를 걱정하며 이상한 수술을 하러 이상한 곳을 찾아 엄청난 비용까지 치르는 우리나라 특유의 성문화도 있다. 잠깐 이런 수술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술적으로 명확히 인정된 적 없으며 이를 통해 부부간의 애정과 성생활의 만족도가 개선되었다는 명확한 학술보고도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성기능장애에 의학과과서 어디에도 그런 수술이 여성 성기능장애의 주치료법으로 기술된 적 없다.



각설하고, 그 어떤 행위가 매번 백점 만점으로 끝날 수 있을까. 이는 성행위도 마찬가지다. 성행위는 어디까지나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부부의 놀이다. 노래를 부른다고 노래방 기기가 매번 100점 만점 광파레를 울릴 순 없다. 골프를 친다한들 매번 신기록을 갱신하고 최고의 만족감만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좀 못했으면 이런 저런 점을 고치고 다음번에 좀 다른 변화를 주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이런 저런 재미와 아쉬움을 겪어가며 함께 만들어가야 할 부부간의 애정놀이가 매번 100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늘 강조했듯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오르기즘을 느끼는 경우는 4번의 성행위에 한번이 평균이다. 그런 부부들이 대부분이란 게 사실이다. 여기서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차이는 바로 백점을 맞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서로 들쭉날쭉한 애정지수를 잘 다스리며 행복이란 목표로 잘 이끌어가는지에 달린 것이다.

♣ 전희는 여자를 위한 서비스?

바쁘고 피곤하다는 남편은 이리저리 성행위를 피하다가 어느 순간 성욕이 생기는 지 간단히 삽입성교만 원한다. 하지만, 아내는 예측하지 못한 채 남편이 갑자기 덮치다보니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 짜증이 날 수 밖에... 그런데 이런 불편한 아내의 심기는 모른 채 아내의 짜증에 남편은 더 큰 짜증을 낸다.

“아니, 그래서 꼭 전희를 해줘야한다는 거야? 그냥 간단히 피스톤 운동만 치르면 되지, 무드 잡아야하고, 귀찮은 스킨십 해야하고.... 참말로 귀찮어”

더구나 남편은 오늘은 흥분이 떨어지는 마당에 초반에 발기되었을 때 짹째 삽입을 해버리는 게 낫다고 여긴다. 오히려 전희가 길어지면 발기가 수그러들까 신경 쓰여 전희는 더욱 관심 없고 고작 아내의 입술과 가슴을 자극하는 게 전부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다. 흥분이 덜 돼서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남편이 들이대니 즐겁기는커녕 아프기만 하다. 성감대를 자극하는 등 전희를 원하는데, 남편은 들은 채도 않는다. 심지어 어디서 구해왔는지 차라리 윤활제를 쓰자고 고집만 피운다.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전희를 요구했더니 ‘너도 안 해주는데 내가 왜 해주냐’며 큰소리 쳐대니 알미워서 남편을 자극하기는 더욱 싫다.

‘남편은 자꾸 어떻게 자극해달라는데, 꼭 자극해야 흥분되나요. 예전엔 나만 봐도 발기됐는데, 사랑이 식은 탓이겠죠. 제가 꼭 봉사를 해야 하나요?’

바라만 봐도 흥분이 끌어 오르고, 후다닥 삽입성교를 해도 되는 건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부부가 오래오래 즐거운 성생활을 영위하고 싶다면 상대를 위한 배려가 나를 위한 배려임을 잊어선 안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희는 상대방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자극해서 나 자신의 즐거움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남편을 자극해주면 그 흥분도에 따라 발기 강직도는 올라가고, 발기 강직도는 남녀 성기의 밀착과 자극의 강도를 상승시킨다. 남자든 여자든 성감은 단순히 크기 탓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희로 여성을 자극하여 흥분도를 올리면 질 근육은 평소의 이완상태보다 훨씬 적절한 탄력성을 갖게 되어 결국엔 남성이 느끼는 감도가 증가한다. 게다가 여성의 질도 혈류량의 증가로 남성이 발기하듯 전정이라 불리는 질구의 혈관주머니가 에어백처럼 부풀어올라 남성의 페니스를 감싸게 되고, 이런 밀착성의 증가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자극감각의 강도를 올려 상호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전희를 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라 여긴다면, 이는 이제 버려야 할 편견이다. 전희를 통해 상대방을 흥분시키는 것이 상대를 즐겁게 하는 봉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성적 쾌감과 만족도를 올리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서로가 즐거울 수 있다.

- 적어도 함께 살아갈 부부라면 공통관심사이자 의견차가 심한 성생활의 부분에 대해 한번쯤은 오해와 문제의 해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⑥